

다 쏟아붓고 십자가를 생각하라

(사도행전 17:25-34)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실라, 누가, 디모테가 함께 동역한 팀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겼고, 빌립보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일행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20대 초반의 디모테는 환난이 가득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실라 역시 마케도나 지역을 순회하며 동역하다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동역자들을 보낸 뒤 아테네에 홀로 남겨진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위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지성의 중심지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3만 개가 넘는 신상을 세우고도 불안하여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 우상들을 바라보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안 된다는 거룩한 안타까움과 영적인 격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에 휩쓸려 신상을 부수거나 정죄의 비난을 쏟아내는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한 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당당하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허함의 뿌리는 죽음과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지식, 성공, 물질로 삶을 바쁘게 채우려 하거나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냅니다. 죽음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이들은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죽음을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육체적인 죽음이란 아기가 엄마 뱃속을 떠나 더 넓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출산과 같습니다. 단지 잠에서 깨어

나 더 기쁘고 은혜가 가득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영적 수면의 연결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 역시 세상을 파괴하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기 어려워 고통스럽게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두 번째 메시지는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이성의 한계와 역사의 주권을 올바르게 깨달으라는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시인들의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힘입어 살고 존재하는 참된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설명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가들은 인간의 사유를 통해 신을 찾으려 했으나, 인간 이성의 최고 성취는 이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생의 불평등함과 죽음의 두려움을 참기 위해 만들어 낸 유희 사상과 같은 생명의 공허전은 진짜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유희의 동그라미를 직선으로 완전히 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질서를 잡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이 발달해도 똑같은 실패와 갈등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연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친히 진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신학적 실력과 학문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최고 지성인들은 부활의 도를 듣고 조롱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와 여자 다마리 등 소수의 결실이 있었지만 에베소처럼 교회가 크게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박해나 투옥이 없었음에도 처음으로 스스로 큰 쓸쓸함을 안고 아테네를 떠나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심리적으로 깊은 고뇌와 영적인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졌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변증적 접근을 철저히 반성

하고 커다란 영적 작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성과 역사와 종말을 완벽하게 증명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사역에 이르러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1-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무언가 작정할 정도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죽음과 종말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역사에 대해 변증을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십자가 없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능력, 그리고 모든 신학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뼈 속 깊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더욱 선포하고 의도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십자가로 판단하고, 십자가로 결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